

이헌재  
8-12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

93, 11, 7~8

일본은 전후 배상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허 중 호

일본은 전후 배상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은 응당 포츠담선언의 요구에 따라 죄 많은 과거를 청산하고 비군국화, 평화에로 나아가야 하였으며 린접국가와 인민들에 대하여 선린우호 정책을 실시하면서 국제공동체의 성실한 성원으로 새출발을 했어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자기 린방인 조선과 조선인민에 대하여 시종 적대시정책을 실시하였다.

나는 주로 전후에 일본이 조선에서 패주하면서 우리의 평화산업을 파괴하고 조선전쟁에 가담하여 범죄행위를 감행한 데 대하여 그리고 조선인민에게 손해를 입힌 그런 행동이 응당 국제법에 따라 배상되어야 한다는 데 대하여 토론하려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포츠담선언》을 수락함으로써 패전을 인정하고 조선에서의 근 반세기에 걸치는 식민지통치를 끝장냈다.

배망한 일본은 마땅히 과거의 죄행을 뉘우치고  
해방된 조국을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로 건설하려는 조선  
인민의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것을 훼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패주하면서  
이와 정반대되는 행동을 감행하였다.

일제는 조선에서 식민지리권을 구출할 목적밑에  
1945년 6월에 《왕자제지상사》전 사장이며 미쓰이  
재벌의 두목이었던 후지하라를 《특사》로 서울에 보내  
여 아베총독의 승인밑에 재계, 실업계, 정계 두목들을 불  
러다놓고 본토에 실어나를 품목과 파괴해버릴 대상, 새로  
만들 장부와 없애버릴 기록들을 선정하는 밑단을 벌리었  
으며 전후 조선에서 경제적혼란을 조성하기 위한 방법을  
모의 확정하였다. 이 범죄적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아베는  
국고에서 6,740여만원(3,000만달러)의 자금을 지출

하였다. (대비드 콘테 《해방조선의 력사》 (상)

23-24P)

이 범죄적계획은 곧 실천에 옮겨졌다.

일제는 사전에 작성해놓은 파괴대상명단에 따라 북부조선의 64개의 탄광과 광산을 완전히 침수시키고 주요 기계들을 파괴해버리었으며 178개의 탄광, 광산들을 부분적으로 침수시키거나 파괴하였고 제철소와 제강소, 발전소들을 파괴하였다. 그밖에도 47개의 기업소들에서 직장파 생산시설, 용광로, 해탄로 등 중요설비들을 마사버리었다.

일제는 다른 한편 의도적으로 화폐 (《조선은행권》) 를 람발하였으며 은행의 귀금속은 몽땅 빼돌리고 빈장부만 남겨놓았다. 1943년 7월 조선에서 원류통액은 10억원이었는데 후지하라가 밀담을 벌린후인 1945년 7월에는 46억원, 8월에는 근 80억원으로 급증하였다.

람 발한 화폐의 많은 부분은 재물로 변화되어 일본에 실리갔으며 다른 많은 부분은 시장에 범람하여 심각한 화폐과잉현상을 조성하고 해방된 조선의 경제를 혼란시키는 데 이용되었다.

일제는 또한 중국대륙과 조선에서 약탈한 금은보화들을 일본에 실어가기 위하여 조선연해의 배들을 모조리 끌어감으로써 조선의 해상운수와 어업을 파괴하였다.

《해방조선의 력사》(상) 209-210P)

일제가 패주하면서 감행한 이 파괴약탈행위는 계획적인 것이었다. 그 목적은 해방된 조선인민이 자기 손으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는데 있었으며 조선의 산업과 경제는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내외에 《확신》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지배를 계속 유지해보려는데 있었다. 이것이 《포츠담선언》에 정면으로 대립되는 행위라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또한 《베르사이유평화조약》(1919년 6월 28일) 전쟁배상조항에 해당하는 범죄로 된다. 이 조약의 제8편 제1항 제1부속서에는 군사공작물 또는 그 재료가 아닌 모든 재산으로서 륙상, 해상 또는 공중으로 날라갔거나 차압, 훼손, 파괴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할 것을

규정하고있다.

일제의 이러한 죄행으로 하여 조선인민은 북에서만 하여도 일본이 파괴한 모든 공장, 기업소, 탄광, 광산을 완전히 복구하는데 웅근 2차례의 1개년인민경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은 일본이 그만큼 포츠담선언의 해당조항을 유린하고 조선인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을 지연시켰다는것을 의미하며 경제시설을 파괴한 손해를 배상하고 그로 하여 경제발전을 지연시킨 손실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을 지게 된다는것을 말한다.

일본의 조선인민에 대한 적대행위와 국제법에 대한.란 폭한 유린행위는 지난 조선전쟁시기에 절정에 달하였다.

일본은 조선전쟁을 계획한 공모자이며 미제의 조선침략전쟁을 적극 협력한 조선인민의 적대적교전일방으로서 수백만 조선인민을 피흘리게 하고 수천년의 력사기간 창조하여온 우리 인민의 우수한 문화재들을 파괴하고 조선의 모든 도시와 농촌을 재더미로 만든 장본인의 공범자이다.

일본은 벌써 1949년에 조선전쟁을 계획하고 작전지도를 작성하여 미국에 제공하였다.

그 지도는 구일본군 장성들이 맥아더사령부의 정보국(G-2)과 작전국(G-3)에 소속되어 청일, 로일 전쟁

경험에 토대하여 작성한 것이었다. 그 범죄에 전 일본육군참모본부 차장 가와베 도라시로를 중심으로 한 《KATO》기관과 참모본부 작전과장 핫토리틀 두목으로 한 《력사반》이 가담하였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일본출판물들에 전하여 폭로되었다. (《인물왕래》 1984. 9.)

전쟁이 개시되자 일본정부는 1950년 7월 4일 내각회의를 열고 《조선에서 미군의 군사행동에 행정조치의 범위안에서 협력할 방침》을 선참으로 토의결정하였으며 관방장관 오카자키는 7월 1일에 《일부(일본) 사람이 점령군의 명령에 의하여 전투행동 및 기타에 종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공언하였다. (《산교게이사이신봉》

1950년 7월 2일)

보는바와 같이 조선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정부는 즉시 교전일방이 되어 미군을 적극 지원하며 전장에서의 전투행동에도 주저없이 참가할 것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언명하였다. 이리하여 조선전쟁참전은 일본정부의 정책으로 되었다.

일본은 먼저 일본의 전령토를 미군의 공격기지, 출동기지로 제공하였다.

당시 《비 29》를 비롯한 대형폭격기들과 최신형비

행기들의 대부분이 일본의 40여개 비행장에서 출발하여  
조선의 도시와 농촌에 대한 초토화작전을 감행하였는데  
연 출격회수는 105만 회였다. (《한국전쟁사》 547p)

일본의 협력(기지, 폭탄 제공)으로 감행된 《초토화  
작전》의 결과에 대하여 《유엔군》사령관 마크 클라크는  
북조선의 모든 공장을 재로 만들고 78개의 도시를  
《지도우에서 없애버린것》이었으며 《북조선에는 쓸어도  
남는것이란 하나도 없게》 만든것이었다고 언명하였다.

일본의 모든 철도, 자동차, 해상 운수수단들은 미군의  
군사인원들과 군사장비 수송을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복무  
하였다.

1950년도에 일본 국영철도가 수송한 미군수는  
90.4만 6,000명이었고 1951년에는 878만  
3,000명이었고 군수물자는 1950년 10월이후부터  
매달 거의 82-85만톤수준에 이르고있었다. 여기에  
할당된 열차차량수는 1만 2,000량, 선박은 30만톤

이상이었다. (《속점령하 일본의 분석》 12~14p)

《전후 일본》 255, 258p)

일본은 또한 미군의 보급기지, 수리기지로서의 역할도 수행하였다.

일본 정부는 《조달청》이라는 기구를 새로 내고 미군의 《특수주문》에 따라 군수품을 생산보장하였는데 그 가운데는 세멘트, 자동차부속품으로부터 락하산, 조준경, 조명탄, 총탄, 수류탄, 각종 포탄, 대포, 자동차까지 들어있었다. 전쟁 첫 1년간에 일본이 미군에 생산보장한 자동차는 1만 385대였으며 (《속점령하 일본의 분석》 16, 17p) 1952년 3월부터 정식무기생산을 개시한 후 무기공급이 첫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전쟁 3년간 일본이 미군에 팔아넘긴 무기총액수는 11억 3,700만달러였으며 (《속점령하 일본의 분석》 16, 17p) 군수품의 총값은 23~24억달러였다고 한다. (《아까하다》 1970. 6. 25)

조선전쟁에서 파괴된 미군의 거의 모든 군사장비들은 일본에서 수리되었다.

《뉴욕 헤랄드 트리뷴》지(1952. 6. 7)는 전쟁  
개시후 1년간 조선전선에서 파괴된 자동차의 84%, 땅  
크의 38%, 각종 포의 68%, 저격무기의 70%가  
일본공장에서 수리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이 수자는 그대  
로 일본이 그만큼 양의 무기를 새로 생산하여 전선에  
투입해준것이나 다름없다는것을 말한다.

일본이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범죄 가운데서, 가장 엄중  
한것은 조선전선에 일본이 직접 자기의 군사인원들을 파  
견하여 조선인민을 살해하는 전투행동에 참가한것이다.

일본군대가 조선전선에서 싸웠다는것은 이미 공개된  
비밀이다. 일본군 포로 야스이 다즈구니의 자백에 의하  
면 《일본인의 생김새와 얼굴이 조선사람과 비슷》하고  
조선의 지형에 익숙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일본군대는, 처음  
에 주로 미군참모부와 정찰대, 수색대에 편입되어 척후병  
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1953. 8. 13.)

《폴롬비아방송》 도쿄지국장이 1952. 9. 20일부  
중계방송한데 의하면 조선에서 《유엔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우고 있는》 《도쿄지원병》은 무려 8,000여명  
이나 되었다. 그 가운데서 625명은 주일 남조선피퇴

대사가 모집한 《재일 한국 청년》이라고 하였으므로 나머지 다른 외신들은 조선전선에 참가한 일본의 병력이 1만 5,000명이라고도 보도하였다.

일본해군은 인천과 원산 상륙작전에서 미군의 돌격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맥아더사령부 외교국장이었던 시몽트는 《제10군단을 인천상륙지점에 수송하는데 사용된 120척의 선박가운데서 3분의 1은 일본인이 타고있었으며 약 20척의 소해정에 일본인이 타고... 조선량해안의 소해작업에 참가》하였다고 고백하였다. (《일본점령외교의 회상》 172P)

1950년 10월초 원산상륙작전때에는 감응기 퇴소해에 높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있었던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 8척의 소해정이 원산앞바다에 와서 기뢰를 해제해주었고 미군이 상륙할 때에는 기뢰원사이를 누비면서 미군의 항로를 안내해주는 돌격대로 복무하였다.

일본점령 미해군사령부 정치고문이었던 켈스 아어의 고백에 의하면 1950. 10. 2 - 12. 12까지의 기간에 조선전쟁에 동원된 46척의 일본 소해정과 대형시합선이 1,200명의 이전 일본 해군군인들에 의하여 인

천과 원산을 비롯하여 군산, 해주, 남포 등 조선해역에서 소해작업을 진행하여 연 327km의 배길과 607평방마일이상의 정박지를 소해하였다고 한다.

(《되살아난 일본해군》(상) 《조선전쟁에서의 일본소해정의 역할》)

일본은 전쟁기간 미군의 세균전에도 적극 가담하였다.

악명높은 《731부대》의 세균연구성과를 그대로 고스란히 미군에 넘겨주었을뿐아니라 세균과 세균매개체의 배양 세균탄용기의 생산에서도 미국과 협력하였다.

제반사실은 일본이 조선전쟁의 적극적인 참전국이며 미국의 동맹자인 영국이나 프랑스에 비할바없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영국이나 프랑스가 없어도 미국은 조선침략전쟁을 수행할수 있었겠으나 일본의 협력이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하였다. 때문에 제2대 《유엔군》 사령관 리치웨이는 일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조선사변은 3개월도 유지할수 없었을것이다》라고 실토하였으며 주일 미대사 머피도 《조선에서 미군과 함께 유엔군사령부밑에서 일한》, 《조선을 잘 알고있는 일본인전문가들의 원조가 없었더라면 조선에 남아있는것은 매우

곤란하였을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조달청 《점령군 조달사》 기초편 577 P, 《군인속의 외교관》 433 P)

《유엔군을 협력》한다는 간판 밑에 감행된 이 범죄는 《포츠담선언》에 직접 위반되는 것이었고 전쟁배상에 해당하는 살인 파괴 행위였다.

《포츠담선언》은 《일본국을 전쟁을 위하여 재군비를 할수 있게 하는 사업》은 제거하며 (11조) 《일본군대는 완전히 무장을 해제한 다음 각자의 가정에 되돌아가 평화적이며 생산적인 생활을 영위》 (9조) 할것을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생산을 본격적으로 개시하고 구일본을 재무장시켜 대일전승국의 하나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한것은 완전히, 비법적인 것이며 용인될수 없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더우기 범죄자의 처지에서 또다시 교전일방이 되어 온 일본렬도를 미군의 공격기지, 수리기지로 제공하였을 뿐아니라 직접 각종 포와 포탄, 총탄, 차량 등을 생산하여 미군에 공급하였으며 군대까지 파견하여 지상, 해상작전에 참가함으로써 조선의 평화적산업과 도시, 농촌

을 재더미로 만들고 무고한 인민들을 학살한 공범자로 되었다.

《베르사이유조약》에는 《륙상, 해상, 공중의 포격, 그 밖의 공격, 군사행동 등 전쟁행위에 의한 보통인민의 부상, 사망으로 입은 손해》와는 보상하기로 규정되어있다.

일본정부는 조선인민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일본의 군사행동의 실태 특히는 조선전선에 파견한 병력수와 무기공급정형을 사실대로 공포하여야 한다.

일본은 조선전쟁에 가담한 《혜택》으로 패전후 침체되었던 산업을 되살릴수 있었으며 이때문에 조선전쟁을 《20세기의 가미가제》라고 불렀고 《가미가제》의 덕분으로 《황금의 소나기》를 맞게 되었다고 환성을 올렸다.

그러나 이 《황금의 소나기》는 실제로 있어서 수백만 조선인민의 《피의 소나기》였다. 전후 일본의 《번영》과 60년대의 《고도성장》은 이 《피의 소나기》에서 얻은것이였으며 오늘의 일본의 경제장성은 명실공히 조선인민의 고향을 밀거름으로 한것이였다.

일본은 조선전쟁후에도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계속함으로써 우리 인민에게 큰 손실을 입히였다.

일본은 우리 공화국 정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불공정한 무역제한조치를 취하였다.

일본 정부는 《미승인국》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우리나라에 대하여 교률의 관세를 적용하여왔으며 (중국과는 국교정상화전인 1968년에 이미 관세력차조치를 해소하였었다.) 조선국적무역선의 승무원에 대한 상륙도 금지하여왔다. 그리하여 대일수출액의 약 50%가 관세 《적차》에 의한 차별을 받고있으며 무관세로 수출할수 있는 것은 무연탄, 마그네샤크링카 등 1차 산물에 국한되고있다. 이 부당한 무역차별 정책으로 하여 우리 공화국이 입은 손실은 참으로 형언할수 없을 정도로 크다.

일본은 또한 남조선일변도정책과 분렬주의적인 《두개조선》 정책을 집요하게 실시하였다.

남조선일변도정책은 《남조선-일본협정》 체결로 이어져 조일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수행에 난국을 조성하였으며 1965년 2월에 드러난 《세계화살작전》 계획은 일본의 남조선일변도정책이 중국적으로는 《제2조선전쟁》을 일으켜 공화국 정권을 무력으로 정복할것을 목표로 하고있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일한문제의 고찰》 150-151P)

《세계화살작전》 계획은 그후 조선을 겨냥한 《3각 군사동맹》으로 실현되어가고있으며 《두개 조선》 정책은 조선의 분렬을 지속시킨 주요한 외적요인의 하나로 되고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조선적대시정책은 조선에서 긴장 상태를 항시적으로 조성함으로써 공화국에서의 경제건설에 엄청난 장애를 조성하고 조선인민의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만일 일본을 비롯한 외세의 간섭이 없었더라면 우리 인민은 벌써 오래전에 조국을 통일하고 중립적이고 평화적인 부강한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하였을것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일본은 조선인민에 대하여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보상할 책임을 지고있다.

일본 정부는 전후 근 반세기에 걸쳐 저지른 이와 같은 범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근하게 사죄하여야 하며 국제법에 따라 조선인민에게 끼친 손해와 손실을 응분배상하고 보상하여야 한다.

이 길만이 성실한 과거 청산으로 되며 성근하게 속죄함으로써만 조일관계개선의 길이 열리게 될것이다.